

이번 학기 우리신문은 학부 이후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에서 연구자의 삶을 선택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첫 번째로 고고학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고아라(박사 2기), 이진형(박사 1기) 씨를 만났다.



이진형

고아라

청년극우 연속기획 마지막 회차로 극우 정서의 중·장기적 위험 요소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지 살펴본다.

# 대학주보

## 양 캠퍼스 학생회 보궐 선거 시작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양 캠퍼스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다.

국제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지난 12일 '2026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보궐선거 후보 명단'을 공고했다. 이번 국제캠 보궐선거에선 ▲총학생회 [루트] ▲전자정보대학 [Vector] ▲응용과학대학 [CAMP] ▲국제대학 [Leads] 선거운동본부가 임후보 명단에 올랐다.

국제캠은 오는 23일까지 선거운동이 이뤄지며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국제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46조에 따라 투표기간이 지났음에도 투표율이 50% 미달일 경우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 투표가 실시된다. 1회 연장 투표 이후에도 투표율이 미달일 경우엔 중선관위와 각 후보 측이 합의를 통해 추가 연장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제캠은 중선관위가 선거를 일괄 관리하는 반면 서울캠은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별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서울캠은 지난 10일 선거 공고가 발표됐으며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은 16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다. 임후보자 자격 심사 및 후보자 등록 명단 공고는 19일 12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선거운동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투표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투표율이 50%에 미달될 경우 투표 기간은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1차 연장되며 이후에도 투표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3일 오후 6시까지 최종 투표 기간이 연장된다.



### 양 캠퍼스 동아리 박람회 열려

동아리 박람회가 지난 4일 서울캠 청운관 앞 광장을 시작으로, 11일에는 국제캠 대운동장에서 각각 이틀간 개최됐다. 양 캠퍼스 합쳐 80개가 넘는 동아리들이 참여해 학생들로 북적였다. 네오르네상스관 앞에선 춤, 노래, 악기 공연이 활기를 더했다.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이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느낌을 줬다. (사진=대학주보 DB)

## 지난해 대외연구비 수주액 1950억 역대 최고 실적...배경은 지원과 집중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 지난해 우리학교의 대외연구비가 1950억 원가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학협력단 설립 이래 자체 최고 실적이다. 대외 연구 과제 실적은 대학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대학의 재정 확충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연구 현장에 있는 교원을 만나 작년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와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최근 3년간 대외연구비는 ▲1671억(2023) ▲1672억(2024) ▲1950억(2025)으로 증가 추세다. 단, 2025년 실적은 2026년 4월 1일자 교원 수를 기준으로 집계해 추후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대외연구비 실적은 2024년 대비 약 278억 원 증가하며 1년 새 16.6%나 늘었다. 이에 대해 산학협력단 흥인기 단장은 "R&D 예산 삭감이 있어 조금 낮게 집계되긴 했지만 삭감되기 전보다도 연구비가 늘었다"면서 "여태까지 우리학교 대외연구비 실적으로는 산학협력단 설립 이래 가장 높은 수

치"라고 밝혔다.

### '원스톱 서비스' 도입 교원 행정 부담 최소화

산학협력단은 이같은 성과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꼽았다. 원스톱 서비스는 기존에 교원이 직접 각 부서에 요청·수행해야 했던 계약 업무를 산학협력단 R&D기획팀이 전담하는 제도로 2024년 말 도입됐다. 사업 수주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해 교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흥 단장은 "사업을 신청할 때 제안서를 쓰고 학교 지원이나 지자체 협력을 요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산학협력단이 지원해 교수님들은 최대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도 없이 교수님들께 대외 연구비 수주를 독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24년 3월 산학협력단장 부임 이후부터 원스톱 서비스 기획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원들은 특히 대형 연구 과제 지원 시 원스톱 서비스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